

'2030 주린이' 겨냥 토스증권 출사표… "3년 내 리테일 1위"

토스증권 공식 출범 선언

메뉴이름 '구매하기' '판매하기' 관심종목 급등락 변동 앱푸시 등 투자 입문자에 맞춰 MTS 개발 리테일 업무 집중해 역량 발휘

토스증권이 리테일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출사표를 던졌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100만, 3년 후 리테일 점유율 1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통해 투자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란 기대가 크다. 투자은행(IB)·주식발행시장(ECM) 등에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하며 업계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리테일 중심의 증권사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토스 "밀레니얼 세대 잡겠다"

토스증권은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선보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뉴페이스'의 탄생이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30 밀레니얼 세대와 투자 입문자가 주 타깃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가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존 증권사는 금융상품 판매에만 집중된 서비스를 펼쳐왔다"며 "모두 수수료 경쟁에 뛰어 들었고 서비스 외적 경쟁만 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지 않은 서비스 역시 고액 자산가에게만 쏠려 있어 소액투자자와 일반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 이것

이 레드오션으로 평가되는 증권업계에 뛰어든 이유"라고 밝혔다.

MTS도 여기에 맞춰 개발됐다. 쉽게 쓰인 점이 눈에 띈다. 매수와 매도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메뉴의 이름은 각각 구매하기, 판매하기 등으로 표시된다. 호가화면도 직관적으로 설계해 주식거래를 간편히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리서치 정보도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으며 관심종목이나 보유 종목의 급등락 등 변동 사항도 앱 푸시를 통해 즉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토스증권은 이달 초 사전신청자 대상으로 MTS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체 오픈을 마칠 계획이다.

거래수수료는 0.015%다. 사전신청 이벤트를 통해 처음 6개월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 증권사가 이미 MTS 수수료를 무료화했음에도 박대표는 승부수를 통할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기존 증권사 MTS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 앱으로의 기능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정도의 수수료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힘줘 밀했다.

◆"리테일 주력"… 키움증권과 경쟁

증권가에선 토스증권의 등장이 업계 판도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증권사 수의 구조는 기존의 위탁

매매(브로커리지) 업무에서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IB 업무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WM) 업무로 무게추가 이동했다.

하지만 토스증권은 이러한 추세와 달리 리테일 업무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확실한 노선을 정했다. 대형 증권사들의 변화를 족발하진 못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아무리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의 벽을 허물었다 하더라도 오랜 경험과 신뢰가 필요한 IB 부문에서 단기간에 두각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토스증권도 이 점을 알고 있다. 박재민 대표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라며 "IB 쪽으로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리테일 외에 다른 쪽을 확장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다만 리테일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는 타격이 예상된다. 토스증권의 실질적 경쟁상대로는 키움증권이 지목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서 리테일 부문 지배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인터넷·모바일 특화 증권사라는 정체성 측면에서 콘셉트가 겹친다는 얘기다. 토스증권이 젊은 층을 겨냥한 리테일에 주력하겠다고 예고

한 만큼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토스증권의 첫 목표는 100만 MAU 달성이다. 이미 3일 오전까지 25만명의 투자자들이 MTS 사전신청 이벤트에 응모하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박 대표는 "100만 MAU가 넘어서면 시장 상위권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며 "3년 후엔 리테일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현재 100만 MAU는 전체 이용률의 10% 정도 점유율로 이를 달성한 증권사는 키움증권뿐이다. 사실상 토스증권이 키움증권을 꺾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민 토스증권 서비스기획총괄은 "1800만 토스 이용자 대상이어서 고객유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을 들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젊은 신규 주식투자자에 대한 시장 선점 효과를 생각하면 리테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리테일 비중이 크지 않고 자본력도 부족한 중·소형사라면 차라리 전적으로 기업금융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1063가구 대단지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주목

한화건설, 합리적 수준 관리비 적용 야외 키친 등 대규모 커뮤니티 눈길

한화건설이 경기도 수원에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1063가구의 대단지로 소형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다양한 조경시설과 대규모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효과가 높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많은 세대가 공동 관리비를 나눠 내는 만큼 각 세대별 관리비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넓은 조경시설을 꼽을 수 있다. 부지 면적 자체가 넓은 만큼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녹지 공간을 꾸밀 수 있다. 빛밋하게 조성된 잔디나 나무 몇 그루가 고작인 게 아니라 고가의 나무나 권위 있는 작가의 조형물, 야간 경관 조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반려견 놀이터 '펫 프렌즈 파크'.

니티 시설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양상은 보다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에서 잘 드러난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조경시설로 반려견 놀이터 '펫 프렌즈 파크'를 비롯, 어린이 놀이터 '메리키즈그라운드', 야외운동시설 '바이탈코트' 등이 단지 곳곳에 배치되고, 약 1.2km 길이에 달하는 단지 내 산책로도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지하 1~2층에 약 5100m² 규모로 지어진다. 북하우스 등 문화비즈니스 공간과 함께 대형 실내 체육관, 필라테스 스튜디오, 키즈 카페, 맘스카페 등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인계동 인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우건설 화상회의 플랫폼 줌 배경화면 배포

푸르지오 인테리어사진 등 활용제작

대우건설이 대표 공사실적 사진과 '푸르지오' 입주단지 및 견본주택의 고품격 인테리어 사진을 활용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배경화면을 제작해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줌으로 활용하는 여려 소비자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즐거

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배경화면 선택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장면들로 이루어진 배경화면을 제작했다. '푸르지오' 인테리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면 마치 집 안 서재나 거실, 단지 내 고급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배경화면으로 사용되는 대우건설의 대표 공사실적 사진으로는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2019년 준공), 경남 거제시 '거가대로'(2010년 준공), '알제리-오만 비료공장'(2012년 준공), '모로코 비료 공장'(2016년 준공) 등이 활용됐다.

이 외에 '푸르지오'의 인테리어 사진으로 '과천 푸르지오 써밋'(2020년 입주),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020년 분양),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2020년 분양), '영흥공원 푸르지오 더 퍼스트'(2020년 분양) 등 최근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입주 및 분양 단지들이 활용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만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빌린 주식을 내다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공매도를 완전금지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일부 재개된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 까지 연장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로부터 2~3 조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국투자證 뱅키스 계좌수 400만개 돌파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혁신 앞세워 2030세대 고객 57%로 비중 증

한국투자증권 뱅키스(BanKIS) 누적 계좌수가 400만개를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계좌 수 400만개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다. 2019년 한해에만 135만 개, 2020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170만 개 등 2년 사이에 신규계좌 330만개가

늘어났다. 하루 평균 4300개가 넘는 계좌가 만들어진 것이다. 누적 계좌수 70만 개 수준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471% 증가한 수치다.

시작은 2019년 3월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내놓은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였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금융상품권, '해외주식 소액 매매 서비스' 미니스탁 등 차별화된 혁신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 결과 2018년말 전체 고객의 37%에 불과했던 20·30세대는 2021년 현재 57%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송태화 기자